

상하이 대성당에서 성 호세마리아의 그림이 놓아 되었다.

1970년 성 호세마리아는 과달루페 성모상을 모신 성당에서 기도하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했다. 그곳에서 그는 전 세계 교회, 중국 교회와 오푸스데이의 법적 지위를 위해 기도했다. 당시 그는 과달루페 성모상을 바라보면서 죽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. 그 소원은 1975년 6월에 이루어졌다.

2025-12-11

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, 상하이 대성당에서 성 호세마리아의 그림이 놓아 되었다.

12월 12일에 스테파노 아라나즈 신부님과 스페인어권 및 포르투갈어권 공동체는 대성당에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의 유물과 성 호세마리아의 그림을 기증했다.

유물과 그림은 존 티안 주인신부님께 전달되어, 대성당 내 과달루페 소성당에 안치되었다.

1970년 성 호세마리아는 과달루페 성모상을 모신 성당에서 기도하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했다. 그곳에서 그는 전 세계 교회, 중국 교회와 오푸스 데이의 법적 지위를 위해 기도했다.

당시 그는 과달루페 성모상을 바라보면서 죽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. 그 소원은 1975년 6월에 이루어졌다.

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 또한 2016년 성모 마리아 과달루페의 날에 세상을 떠났다.

....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
sanghai-daeseongdangeseo-seong-
hosemariayi-geurimi-noha-doeeossda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sanghai-daeseongdangeseo-seong-hosemariayi-geurimi-noha-doeeossda/)
(2025-12-12)